

기획

미흡한 준비가 갈등 빚어 ...

길게 읽기 - PRIME 사업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최재원 기자 jankin1997@knu.ac.kr

PRIME 사업 계획이 공개된 뒤 대학가는 크게 술렁였다. 물론 그 일차적인 이유는 사업에 선정될 경우 받게 될 지원금의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형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총 1,500억 원으로,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사업)'으로 선정된 9개 내외의 대학에게는 평균 150억 원,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총 10개교 내외로 추려지는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사업)'에게는 총 500억 원, 다시 말해 대학별 평균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만한 지원이 따르는 만큼, 선발된 대학이 감내해야 할 사항은 결코 적지 않다.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은 사실상 앞에서 언급한 교육부의 주요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원감축 혹은 이에 준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만 한다.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최소 10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을, 소형 사업의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5%(최소 50명 이상)나 100명 이상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 참여 조건이다. 즉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단순히 학사조직과 학과개편 등 제도적 측면의 개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캠퍼스(이원화 캠퍼스) 간 정원조정이나 교원이 등을 포함한 대학(본·분교) 간 정원조정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학사구조조정을 강행했는데 탈락해버릴 경우'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선정될 경우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의 지원금이 동인(動因)이 되어 많은 대학들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PRIME 사업을 위한 준비에 앞 다퉈 돌입하고 있는 중이다.

우려의 목소리와 회의의 시선

위험 부담 요인이 큰 만큼, 당연히 PRIME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여러 대학의 구성원은 제일 먼저 사업 준비 과정에서 대학과 구성원



‘소통의 부재’는 PRIME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다.

“

”

간에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걱정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 자체가 사회 수요에 맞는 학문 간 정원 조정이므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각자의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정원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정황에 따라 학사구조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학 구성원은 그 범위가 거의 전부로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대학은 이 민감한 안건에 대해 촉박한 사업 일정 속에서 ‘전 구성원’과 투명하고 허물없는 대화를 진행해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PRIME 사업에 대해 의심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학사구조개편이라는 이슈는 언제나 대학본부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촉발하곤 했다. 지난 3월 31일 건국대학교(건대) 학생 300여 명이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건국대 행정관을 점거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건대 대학본부에서는 학사구조개편을 통한 학과제 전환과 학과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당시 건대 학생들의 입장은 ‘설령 학사개편이 옳다고 하더라도 구성원 간의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소통의 부재’는 PRIME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다. 지난 2주간 진행한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서울지역의 10개 주요 대학에서는 이 PRIME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전략 유출이 우려돼 진행 과정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선정되기 위한 경쟁률이 높다’는 사실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조차 ‘정보의 장막’이 쳐지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초 구성원과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이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10월 21일이다. 사업 선정일이 오는 2016년 2~3월로 예정되었으므로, 사업 준비 기간은 대략 4~5개월이다. 문제는 이 사이에 2~3개월에 달하는 겨울방학 기간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 모여 사업 준비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다수의 구성원이 주요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받기도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교육부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공청회’에 참석한 ‘대학교육연구모임 대학교발자(대학고발자)’ 소속 학생들은 ‘왜 우리에겐 묻지 않습니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대학교발자 전진희 운영자는 “대학의 역할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인데, PRIME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수요에 따른 인재 양성은 곧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학과통폐합이나 학사개편 등이 오로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PRIME 사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이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는 PRIME 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그녀는 예뻤다』 취업·창업·진로특강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취업·창업 등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 드리고자 성공한 선배 CEO 및 코칭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 및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 취업·창업·진로특강,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일시 : 2015. 11. 19(목) 15:00 ~ 17:00

●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생명과학대학 시청각실(1층)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취업·창업특강	○ 여성벤처기업 선배CEO가 전하는 창업스토리 - 공기 청정기 시장에 새바람을 주(주)에어비타 이길순 대표
진로특강	○ 정밀로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면 성공 한다 자기개발 및 셀프 리더십 - 코칭을 수출하다! 한국 최초의 코칭 전문기업 (주)인코칭 홍의숙 대표
토크콘서트	○ 선배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사회자+연사+청중) - 연사 : 여성벤처 청년위원장 선배CEO, 학생대표

●주최 : 중소기업청, 한국여성벤처협회,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창업보육센터, 총(여)학생회

●문의사항 : 취업진로지원처(031-201-3061)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경품추첨이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맞춤형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청년층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안내

● ‘취업성공패키지’란?

-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취업지원 상담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파악 후 진로 및 취업목표설정을 통해 취업까지(최장 1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어서,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직무 분석 특강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특강을 지원하여 참여자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단계 별 참여 수단까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미취업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필히 신청하여 취업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혜택

진행단계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기간
1단계 : 기초상담	- 목표수립, 직업설리검사, 이어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참여수당(15만원)지급	1주~3주
	-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후 출련참가 가능	
2단계 : 직업훈련 (선택사항)	- 일반직종과정 훈련 *훈련비 200만 원(원지비분담 0%~30%) + 훈련수당 최대 월28만 원 4천원 - 국가기인증취득사업직종 훈련 *훈련비 전액 + 훈련수당 최대 월41만 원 6천원 훈련과정검색 www.hrd.go.kr 참조	6개월 (훈련기간)
3단계 : 집중취업상담	- 취업정보제공, 집중취업일선, 면접클리닉	3개월~6개월

※세부사항은 <http://www.work.go.kr/pk/index.do> 참조

● 참여 대상자 : 미취업 졸업생 및 4학년 재학생

※ 참여제한 : 실업금여 수급자,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gemhong48@unies.com)로 제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이름	학번	학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인)				

※세부 문의사항(유니에스중부센터) : Tel. 02-6011-1335~1337 Email. gemhong48@unies.com
홈페이지 : <http://job1.knu.ac.kr> 연락처 : 02-961-0167 위치 : 청운관 1층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11월 셋째 주(11.16~11.20)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미래는 준비된 자의 세계”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제목	일시	장소
개임별 채용전체형 인턴 채용면담 및 모의면접	11.16(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당실
미국번화사 직업설명회	11.17(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더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취업특강

특강 제 목	일 시	장 소
취업술 작성법(배우복 교수님)	11.18(수) 13:00~15:00	청운관 B117호
금융권 취업상담(송승영 교수님)	11.18(수) 17:00~18:00	내오관 104호
수리2(도파데이터처리) 대기업 졸재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진성 교수님)	11.19(목) 15:00~17:00	내오관 103호
외국어/영어 면접/전공교수(교수님)	11.20(금) 17:30~19:30	청운관 B117호

● 취업진로지도 및 출사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어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팅터	일시	장소	신청방법
취업	분야별 컨설팅 4명	화~금 (각 컨설팅별 354호~356호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 107~2호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컨설팅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어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수씩 프린트해서 저첨(필수)

● 취업준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집단상담: 15명